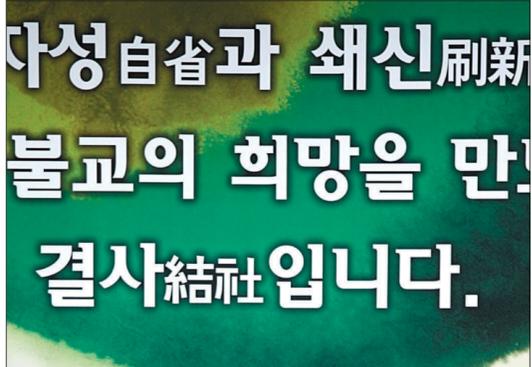


“자성과 쇄신결사에 매진”

총무원장 자승스님, 7일 담화문 발표

조계종이 대정부 관계를 정상화하고 모든 역할을 결집해 자성과 쇄신 결사에 집중함으로써 국민과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종단으로 거듭나겠다고 천명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7일 한국 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발표한 담화문을 통해 이같은 중단을 입장을 밝혔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우선 지난 6개월 여 동안 전개해온 민족문화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담화문에서 “대정부 관계를 정상화하고 자성과 쇄신결사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신재호 기자 air501@bulgyo.com

수호 활동과 자성과 쇄신 결사에 대해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내부의 의지결속과 관심타파를 위한 의미있는 기간이었다고 자평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대화와 출입 제한 방침이 불교적 방식인가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있었지만 종단 전체가 한목소리를 내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자제하고 이해하고 함께 노력한 시간이었다”면서 “무엇보다도 종도들 스스로 자존과 자립의 문제를 진지하게 돌아보는 계기가 됐고 종도들의 의식전환분위기가 확산됐다”고 지난 6개월의 활동에 대한 의미를 부여했다.

이같은 평가를 바탕으로 경색된 대정부관계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소통중단과 출입제한 조치를 해소하고, 전통문화유산과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한 국고지원

예산 등도 정상적으로 집행해 나가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대신 정부여당 관계자와의 만남에서 승가의 본분과 위의를 견지하고 종단의 위상에 어긋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고 예산 수령 및 집행에서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철저한 감사와 불사심의위원회 구성, 전문인력 양성 등을 전개해나가겠다고 지침도 세웠다. 국가의 전통문화 관련에

산 편성과 집행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도 모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 가지 불편함을 견디고 종단의 방침에 적극 협조해 주신 사찰 주지 스님과 사부대중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면서 “차단과 제한의 방편 대신 적극적인 만남과 대화를 통해 전통문화정책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종단에서는 전통문화 보존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할 뿐만 아니라 각종 불교규제 국가법령 제개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통문화 보존 및 활용에 대한 정책 제안 및 대책 수립 △현 문화유산보호제도의 문제점 정리 및 개선방안 마련 △민족전통문화

불교 정통수행법 ‘집중과정’ 마련

한국간화선연구소, 7월4일~10일까지

한국불교의 정통 수행법인 간화선을 집중수행하는 수행의 장이 마련된다. 한국간화선연구소(소장 미산스님)는 오는 7월4일부터 10일까지 6박7일간 공주 전통불교문화원에서 ‘간화선 집중수행과정’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수행과정에서는 간화선 보급에 앞장서 온 안국선원장 수 불스님이 지도법사로 나서 참가자들의 간화선 수행을 직접 지도할 예정이다. 별도의 프로그램 없이 화두 참구를 통한 간화선 실참 위주로 진행되는 것이 집중수행과정의 특징이다. 일반 불자들뿐만 아니라 종교를 초월해 남녀노소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집중수행과정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전통불교문화원 홈페이지(www.budcc.com)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국간화선연구소는 “정확하고 빠르며 쉽게 무명을 밝히는 한국 불교 정통 수행법인 간화선 집중수행의 자리를 마련했다”며 “화두 참구를 통해 정진의 벽을 온몸으로 뚫는 체험을 직접 맛보고 싶은 이들에게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염태규 기자 che11@bulgyo.com

“제주,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에 앞장”

조계종, 추진위와 협약

조계종 총무원이 제주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에 앞장서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주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범국민추진위원회와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사회부장 혜경스님, 제18교구본사 백양사 주지 시몽스님, 제23교구본사 관음사 주지 원종스님, 우근민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정운찬 범국민추진위원장, 고두심 홍보대사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조계종 총무원이 제주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에 앞장서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신재호 기자 air501@bulgyo.com

조계종은 이날 협약에 따라 불자들이 대상인 제주 7대 자연경관에 대한 홍보 및 투표 참여 등 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돕는다. 세계 7대 자연경관은 스위스의 뉴세븐원더스(New7wonders)재단이 주관하는 캠페인으로, 2007년부터 440국의 후보로 시작해, 최종 후보 28곳이 결정

됐다. 오는 11월11일에 최종 7곳이 선정된다. 정운찬 추진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팔만대장경과 고려청자라는 찬란한 문화를 오늘까지 계승·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은 그 근원에 불교가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종정 법전스님을 비롯해 총무원장 자승스님 그리고 여러 스님께서 제

그린벨트 내 사찰 증축 쉬워진다

국토부, 관련법 입법예고...최대 1만㎡까지 가능

빠르면 오는 9월부터 그린벨트와 도시자연공원 내 전통사찰이 증축할 때는 대지면적을 최대 1만㎡까지 조성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3일 공고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시행령’의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원 내 전통사찰이

증축을 하면서 건축면적을 2배 초과해 대지를 조성해야 할 불가피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30%범위(최대 1만㎡ 미만)에서 추가로 대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완화됐다.

현재는 개발제한구역이나 도시자연공원 내 전통사찰의 증축은 문화재청장 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한 규모까지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대지는 건축

면적의 2배까지 조성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정만섭은 “국토해양부가 종단과 협의의 없이는 시한에 쫓기듯 입법예고를 해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바뀌게 된 건폐율과 대지면적을 이미 초과한 사찰이 있는 만큼 건밀하게 협조해 종단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인택 기자 parkintak@bulgyo.com

辭 令
 이성수 命 편집국장 직무대행
 2011년 6월 7일자
 불교신문사

자재공덕회, 비구니 노후수행관 건립	11면	능인학원 신임 이사장에 향적스님 선출	14면
---------------------	-----	----------------------	-----

불자님들, 이제 안심하셔도 됩니다

대한불교조계종과 함께하는 재향군인회 상조회

불자님의 상조피해를 막고자 종단에서 직접 검증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재향군인회 상조회에 지금 가입하십시오

재향군인회 100% 출자상조

조계종이 보증하는 유일한 번호 | 상담 시 다니시는 사찰 명을 말씀해주세요

무료상담 080-888-5000

경제적인 상조 장례비용이 사증보다 저렴합니다	편리한 상조 복잡한 장례절차를 모두 해결해드립니다	한결같은 상조 물가가 올라도 추가 부담 없습니다
------------------------------------	---------------------------------------	--------------------------------------